

Beyond Green, Colorful Green

KC그린홀딩스

제 131호 KC뉴스레터

제 131호 KC뉴스레터

2024년 1분기에 있었던
KC그린홀딩스와 관계사의 소식을 공유합니다.

발행일: 2024년 4월
발행주관: KC그린홀딩스 지속가능경영팀
문의/발간: yuseung@green-kc.com

목차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KC솔라&에너지, 수상태양광발전설비 경상정비 수주

KC코트렐, 이산화탄소 포집 모델 플랜트 준공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KC그린홀딩스 2024 시무식

KC그린홀딩스 화재 모의훈련 실시

1분기 안전보건협의회 개최

KC그린홀딩스 제5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KC코트렐, 제1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대외 수상/표창

태성플랜트검정, ESG 경영 우수협력사로 선정

신규 임원 취임

KC솔라&에너지 대표이사 신규 취임

기타

[HR] 희망퇴직과 관련한 실무상 검토사항

[환경] STOP: FAST FASHION

[안전] 알고 먹어야 더 좋은 건강기능식품

[ESG]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기업의 노력 - ① 배출권거래제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대외 수상/표창

신규 임원 취임

기타

< 2 >



KC그린홀딩스
제 131호 KC뉴스레터

KC솔라&에너지, 41MW급 수상태양광발전설비 경상정비 수주

KC솔라&에너지가 한국서부발전의 41MW급 수상태양광발전설비 경상정비 용역을 약 23억원에 성공적으로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방조제에 위치한 수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3년간 KC솔라&에너지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KC솔라&에너지는 "당사가 관리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총 규모는 240MW를 돌파하게 되었다"며 "EPC(설계·조달·시공)와 O&M 분야에서 다년간 쌓아온 폭넓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다양화와 차별화를 통해 시장 내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태양광 발전소의 유지관리 사업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해당 시장 확대에 따라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KC솔라&에너지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KC솔라&에너지, 41MW급 경상정비 수주

KC코트렐, CO₂포집 모델 플랜트 준공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대외 수상/표창

신규 임원 취임

기타

< 3 >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KC솔라&에너지, 41MW급 경량정비 수주

KC코트렐, CO₂포집 모델 플랜트 준공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대외 수상/표창

신규 임원 취임

기타

KC코트렐, 이산화탄소 포집 모델 플랜트 준공

지난 3월 13일, KC코트렐의 이산화탄소 포집 모델 플랜트 준공식이 KC글라스 천안 공장에서 개최되었다.

준공식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 부산시 수소 경제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천환경공단,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전력, 남부발전 등 유관 산업계 관련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준공식에 참석한 KC코트렐 김현수 사장은 인사말에서 "이 설비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 설비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탄소 중립을 향한 한국과 글로벌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 "우리의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기술력은 KC코트렐과 카본코리아의 협력 하에 개발되었다. 친환경 탄산칼륨을 흡착제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모델 플랜트로 하루 약 1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

< 4 >



KC그린홀딩스
제 131호 KC뉴스레터

KC그린홀딩스 2024 시무식

지난 1월 2일 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KC그린홀딩스 시무식이 진행됐다. 이번 시무식은 업무에 적용 가능한 AI의 활용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장기근속 포상과 신년사 순으로 이뤄졌다.



김종규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은 KC그린홀딩스가 창립 50년을 맞이한 자랑스러운 해였지만 한편으로 KC에게 역대 가장 어려웠던 해였다고 말했다.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들게 극복했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백년 기업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 해였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이어 2024년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익성 창출을 위해 KC네트워크에 협조를 아끼지 말 것과 KC다움을 전파할 수 있는 핵심가치 내재화를 직원들에게 당부하였다. 특히 자발적 리더십에 기반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직원이 하나된 힘으로 노력한다면 올해의 미션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하였다. (끝)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KC그린홀딩스 2024 시무식

KC그린홀딩스 화재 모의훈련 실시

1분기 안전보건협의회 개최

KC그린홀딩스 제51기 주주총회 개최

KC코트렐 제14기 주주총회 개최

대외 수상/표창

신규 임원 취임

기타

< 5 >





KC그린홀딩스 화재 모의훈련 실시

지난 겨울 난방 기구의 사용이 많고 날씨가 건조하여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KC그린홀딩스는 사무 공간 내 화재 발생 시에 구성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수 있도록 지난 3월 4일 화재 대응 소방 훈련을 실시하였다.

본 훈련에 앞서 소방시설과 비상구 위치 파악, 소화전과 소화기 사용법, 화재 대피 요령 학습, 자체 소방대 조직구성, 모의 훈련 시나리오 숙지가 있었다. 화재 모의 훈련은 역할 분담에 따라 통보/신고팀, 초기소화팀, 대피팀, 응급구조팀으로 나뉘었다. 통보/신고팀은 화재 시 소방서와 건물 측에 신고하며 함께 입주해있는 관계사 담당자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초기소화팀은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하여 소화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대피팀은 임직원이 피난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인원 체크와 대피 물품 지급을 지원했다. 응급구조팀은 부상자 발생시 응급구조 및 지원활동으로 환자를 보호하여 함께 대피하는 역할을 맡았다. 회의실에서 발생한 가상의 화재를 시작으로 자체 소방대는 제 역할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다. 임직원이 피난지인 1층까지 신속하게 대피를 마쳤으며 대피하는 데에 걸린 시간은 7분 이내였다.

안전교육을 진행한 지속가능경영팀에서는 "오늘은 모의 훈련임에 따라 인원 별로 시나리오에 이름을 넣어 역할을 지정했지만 향후 유사시에 각 팀원들이 했던 일을 기억하여 자체 소방 조직의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 훈련은 구성원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상반기 내에 전 관계사의 화재 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할 것을 장려하고 하반기에는 소방 훈련의 날을 지정하여 전 관계사가 소방 훈련을 하는 날을 가질 예정이다. (끝)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KC그린홀딩스 2024 시무식

KC그린홀딩스 화재 모의훈련 실시

1분기 안전보건협의회 개최

KC그린홀딩스 제51기 주주총회 개최

KC코트렐 제14기 주주총회 개최

대외 수상/표창

신규 임원 취임

기타

< 6 >



KC그린홀딩스
제 131호 KC뉴스레터



1분기 안전보건협의회 개최



KC Network의 1분기 안전보건협의회가 3월 22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총 10개사의 안전보건담당자 16명이 참석하였다.

협의회에서는 KC관계사의 사업장 안전 수준 평가 결과와 정부지원사업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특히 이번 수준 평가 결과에서, KC관계사들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대부분 취득했음에도 아직 안전보건진단결과가 '기초수준'에 머물러 있는 관계사들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KC관계사 중 제조와 건설이 혼재되어 있는 관계사들의 설치와 시공 부문에서의 문서 보충을 당부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이 신속히 취해야 할 지침 사항 5가지로 △대표자=경영 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인지, △작업단위별 관리감독자 지정,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초 형식 구성, △재해발생 사례 정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을 강조했다. (끝)

KC Green Holdings



KC그린홀딩스 제5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KC그린홀딩스 제51기 정기주주총회가 3월 27일 상암동 본사 12층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감사보고, 영업보고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가 보고되었으며 의결사항으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재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의장을 맡은 이태영 대표이사는 “2024년 역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내실 강화와 혁신을 통해, 불확실성을 도전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전환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관계사들의 수익성 향상을 중점에 두고 지주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사업계획 및 중 이슈 검토로 관계사 체질 강화와 사업 전략에 대한 투자 검토 및 PMI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적응하고 녹색산업 선도를 위해 임직원의 핵심가치 내재화와 전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KC그린홀딩스는 별도 기준 영업수익 138억원, 영업이익 82억원, 당기순이익 53억원을 달성했으며, 연결기준 영업수익 6,985억원, 영업손실 299억원, 당기순손실 559억원을 시현했다. 주당 배당금은 액면 배당율 10%인 50원으로 정했다. (끝)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KC그린홀딩스 2024 시무식

KC그린홀딩스 화재 모의훈련 실시

1분기 안전보건협의회 개최

KC그린홀딩스 제51기 주주총회 개최

KC코트렐 제14기 주주총회 개최

대외 수상/표창

신규 임원 취임

기타

< 8 >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KC그린홀딩스 2024 시무식

KC그린홀딩스 화재 모의훈련 실시

1분기 안전보건협의회 개최

KC그린홀딩스 제51기 주주총회 개최

KC코트렐 제14기 주주총회 개최

대외 수상/표창

신규 임원 취임

기타

KC코트렐, 제1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KC코트렐이 3월 27일 상암동 본사에서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KC코트렐의 2023년도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등의 보고사항과 함께 총 5건의 부의 안건이 상정 및 원안 승인되었다.

KC코트렐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발행 예정 주식총수 변경, 발행 가능한 신주 발행한도 변경,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 변경에 관한 정관 변경 안을 상정, 원안 승인되었다. 또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 및 승인하여 김종규 후보자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였다.

2023년 KC코트렐은 매출액 연결기준 4,366억원, 영업손실 211억원, 당기순손실 444억원을 달성하였고 본 주주총회에서 해당 재무제표가 원안 승인되었다. (끝)

< 9 >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대외 수상/표창

태성플랜트검정, ESG 우수협력사 선정

신규 임원 취임

기타

태성플랜트검정, ESG 경영 우수협력사로 선정



△ 태성플랜트검정은 지난 3월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클릭 시, 자동으로 이동

태성플랜트검정은 지난 4월 3일 최대 고객사인 SK이노베이션의 ESG경영평가에 참여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ESG경영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협력사 163개사 중 최고득점으로 1위를 차지하여 포상 받았다.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되면 천만원 상당의 ESG 상품권 지급, 계약 및 하자 이행 보증금 면제, 대출이자 지원, 탄소저감 설비도입 투자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핵심 협력사로서 협업 기회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성플랜트검정은 "체계적인 ESG 경영을 위해 임직원이 'ESG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ESG 경영 강화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끝)

< 10 >



KC그린홀딩스
제 131호 KC뉴스레터



KC솔라&에너지 대표이사 신규 취임

2024년 3월 1일부로 KC솔라&에너지의 신임 대표이사로 나건현 사장이 선임되었다.

이번 대표이사 선임을 통해 나건현 대표는 KC솔라&에너지와 KCVCS 대표이사직을 겸임한다.

나건현 대표이사는 2015년 KC Network에 입사하여 Nol-Tec Korea, KC솔라&에너지, KC코트렐 등에서 경영지원, 재무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KC솔라&에너지 신사업 분야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끝)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대외 수상/표창

신규 임원 취임

I KC솔라&에너지 대표이사 선임

기타

< 11 >



[HR] 희망퇴직과 관련한 실무상 검토사항

희망퇴직은 근로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퇴직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명예퇴직과 차이는 없으나, 희망퇴직은 구조조정 등의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인사 적체의 심화, 고직급·고임금 구조 등에 대처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적정수준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인원 감축 조치는 노사간 극한 대립을 야기할 수 있고, 절차 진행에 따른 법적 제한이 매우 엄격한 반면, 희망퇴직은 그러한 법적 제한이 없고 해고에 따른 소송제기 및 근로자 측 반발, 직원 사기 저하 등의 부작용이 덜하다는 이유가 있다. 셋째, 정리해고에 앞선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희망퇴직을 회사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① 희망퇴직은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회사에서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희망퇴직 요건, 신청 절차, 퇴직위로금 수준 등 희망퇴직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방식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사간 합의에 의해 희망퇴직을 시행한다”는 고용안정협약 등이 체결돼 있다면 희망퇴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 합의가 필요하다.

② 희망퇴직은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임의적 제도이므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기에 앞서 신청 대상의 직급과 연령 등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③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희망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희망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승인(승낙) 없이 희망퇴직의 신청만으로 바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공지했다면 사용자의 공지는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청약에 대한 승낙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④ 퇴직위로금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기업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면 되지만, 한 번 정해진 퇴직위로금은 이후의 희망퇴직 시행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해 현행 고용보험법상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해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구직 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희망퇴직은 일반적으로 회사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인원 및 비용 축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회사 근로자 모두의 입장에서 반가운 제도는 아닐 것이다. 다만, 어떤 제도든 언제,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중요함에 따라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끝)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대외 수상/표창

신규 임원 취임

기타

[HR] 희망퇴직과 검토사항

[환경] STOP: FAST FASHION

[안전] 알고 먹어야 더 좋은 건강기능식품

[ESG]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 12 >



[환경] STOP: FAST FASHION

패스트패션은 빠른 속도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해 소비자들에게 최신 패션 트렌드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산업이다. 주문 후 즉시 제공되는 패스트푸드에서 유추된 말로, 수시로 만들어 소재보다는 디자인을 우선하며 저렴한 가격이 특징이다. 패스트패션은 생산에서 유통까지 다품종 소량생산하는 '자가상표부착제 유통방식SPA: Special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을 채택하며 세계적인 SPA 브랜드로는 자라, 유니클로, 포에버 21, 겍, H&M, 쉬인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 의류 업체들은 1년에 4~5회씩 계절마다 신상품을 내놓지만 패스트패션 업체들은 1~2주마다, 심지어는 3~4일 만에 상품을 교체하기도 한다. 그만큼 유행에 민감하면서 금액도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 해에 폐기되는 옷은 약 330억 개에 달한다. 더구나 의류 제작에 사용된 합성 섬유가 완전히 분해되기 위해선 수백 년이 걸려 기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패스트패션이 의류 과소비를 부추겨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올해 3월에 프랑스 여당 의원들은 패스트패션 업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의원들은 세계 최대 SPA 브랜드인 쉬인(Shein)을 예로 들며 "넘쳐나는 수량과 저렴한 가격의 패스트패션은 불필요하고 끊임없는 충동구매를 야기하고, 이는 곧 환경, 사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했다. 쉬인은 지난해 프랑스 패션시장에서 13%의 점유율을 기록한 선호도 높은 브랜드이다.

패스트패션과 반대로 슬로우패션도 있다. 슬로우패션은 좋은 원료를 기반으로 잘 만들어져 오랜 시간 착용 가능한 의류를 의미한다. 환경을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을 채택하여 제품 수명을 늘리고 폐기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작된 의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득 여건에 따라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패스트패션에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법안에 대하여 일부 외신들은 '값싼 옷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벌금 부과 기준을 따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소비의 자유에 관한 민감한 문제에 해당할 것이다.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패스트패션 옷을 과하게 소비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소비자들은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중고 의류를 구하거나 업사이클링을 활용하는 등 신중한 소비를 통해 구매한 옷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류 업체들은 책임 있는 의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끝)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대외 수상/표창

신규 임원 취임

기타

[HR] 희망퇴직과 검토사항

[환경] STOP: FAST FASHION

[안전] 알고 먹어야 더 좋은 건강기능식품

[ESG]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 13 >



[안전] 알고 먹어야 더 좋은 건강기능식품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건강 유지와 증진을 기대한다. 건강에 대한 TV프로그램이 끝나면 어김없이 홈쇼핑과 온라인에선 해당 영양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판매한다. 모든 식품은 각자의 효능을 갖고 있으나 그것을 구매하여 복용한다고 완전히 홍보 문구의 효과를 볼 수는 없다. 과대 광고에 속지 않고 식품을 잘 알고 먹는 것이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건강 개선 효과가 있기로 알려진 종류들은 일반식품(또는 건강식품), 건강기능 식품, 의약품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 일반식품 :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으로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다. 일반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말하며 '기능성'에 대한 표시 사항은 없다.
2. 건강기능식품 :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 유지와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에서 동물 시험, 인체 적용 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만들어진 제품으로, ' 건강기능식품 ' 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와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으며 1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다.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다.
3. 의약품 : 「약사법」에 따라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며, 의약품에는 유효성(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효과)이 표시된다.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제조한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섭취량이 정해져 있다.

(계속)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대외 수상/표창

신규 임원 취임

기타

[HR] 희망퇴직과 검토사항

[환경] STOP: FAST FASHION

[안전] 알고 먹어야 더 좋은 건강기능식품

[ESG]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 14 >



[안전] 알고 먹어야 더 좋은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에는 다음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이 있다. 첫번째로 제품 표기 사항 미준수이다. 제품에 표기된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거나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지나 섭취한 경우 드물게 이상반응(두통, 설사, 두드러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본인의 건강/질병 상태에 따라 섭취를 지양해야 하는데 대중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식품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종류	효능	주의 대상자	주의 사유
홍삼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혈액 순환,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당뇨 환자, 항응고제 복용자	저혈당, 혈액순환 과다로 인한 출혈/멍 발생 가능
녹차 추출물	항산화 작용,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간질환/간기능 이상자, 임산부/수유부 및 어린이	카페인 함유되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은행잎 추출물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임산부/수유부 및 어린이, 수술 전후 환자, 항응고제 복용자	혈액순환 심화로 인한 출혈/코피, 멍 발생 가능 등
키토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게/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가 많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질병으로 쇠약한 상태인 사람, 수술 전후 환자,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자	유익균으로 인해 염증 혹은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

개인마다 다른 건강상태에 따라 과다/중복/장시간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방 받는 약품이 있다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며, 하나의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휴식기를 갖으며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대외 수상/표창

신규 임원 취임

기타

[HR] 희망퇴직과 검토사항

[환경] STOP: FAST FASHION

[안전] 알고 먹어야 더 좋은 건강기능식품

[ESG]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 15 >



[ESG]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기업의 노력 - ①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은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이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역량과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이윤 창출을 넘어 기업의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이처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교토의정서에서 도입한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를 통하여 일정 한도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각 국가와 기업의 배출량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시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2014년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한 뒤 2015년부터 각 기업별로 배출허용량을 년 단위로 할당하고 있다.

넷제로 달성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대외 수상/표창

신규 임원 취임

기타

[HR] 희망퇴직과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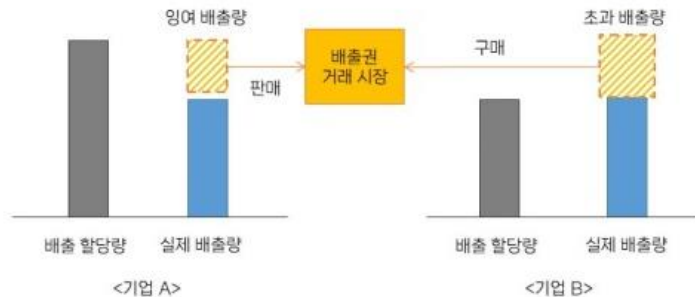
[환경] STOP: FAST FASHION

[안전] 알고 먹어야 더 좋은 건강기능식품

[ESG]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배출권 거래제 개요

- 배출권 거래제 대상: 전환, 수송, 산업, 폐기물, 건물, 공공 및 기타 부문에 속한 온실가스 배출 업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이 125,000톤 이상 업체 or 25,000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 배출권 거래제 범위: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1) +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2)
- 배출권 거래제 매커니즘:



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업이 저탄소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 기술 개발 촉진에 도움이 되고 탄소 배출권 시장 등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어 경제가 활발해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이다. 하지만 거래제 자체가 배출량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고, 초과 배출량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탄소배출량 자체를 저감하기에는 소극적인 정책일 수 있다는 데에서 한계가 있다.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좀 더 많은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탄소상쇄권 시장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끝)

< 16 >



